리액트 인액션 - 챕터 1

컴포넌트

- 리액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캡슐화하는 기본 단위
- 데이터(속성 및 상태)를 다루고 결과를 UI로 렌더링

라이브러리

React Core

- 리액트 코어 라이브러리는 react-dom 및 react-native 라이브러리와 함께 동작
- 컴포넌트의 명세 및 정의에 중점을 둠

React DOM

- UI를 렌더링할 수 있는 렌더러 중 하나를 구현한 라이브러리
- 브라우저 환경 및 서버측 렌더링 기능 구현 목적

React Native

-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UI 렌더링을 위한 라이브러리
- iOS, 안드로이드 등 다른 플랫폼을 위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사용

서드파티 라이브러리

- 리액트는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여러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
- 하지만 리액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

리액트 애플리케이션 실행

- 어떤 플랫폼에서도 실행 가능
 - 웹, 브라우저 및 서버 기반 애플리케이션
 - React Native, React VR 등 다른 프로젝트를 이용해 그 외의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앱을 개발할 수도 있음

리액트를 배우기 전

선수 지식

-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를 모른다고 해서 배울 수 없다거나 얻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님
-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학습 후 리액트를 학습하면 더욱 도움이 됨
-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해져야 리액트 학습에 더 도움이 됨

필요한 자바스크립트 지식

- ES6+ 문법: 화살표 함수, 구조 분해 할당, 템플릿 리터럴
- **함수형 프로그래밍**: map, filter, reduce 등 고차 함수
- 비동기 프로그래밍: Promise, async/await

• 모듈 시스템: import/export

유용한 도구

패키지 관리자

• npm: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패키지 관리 도구

• yarn: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더 빠른 패키지 관리자

• pnpm: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는 패키지 관리자

개발 도구

• Create React App: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도구

• Vite: 빠른 빌드 도구

• Webpack: 모듈 번들러

• Babel: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

가상 DOM

개요

- 리액트의 핵심: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, 개발 과정에 불필요한 추상화 제거
- 개발자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, 여러 상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선언
- 리액트 내부 메커니즘은 컴포넌트의 상태 변경과 이를 UI에 반영하는 작업 등에 필요한 복잡한 과정 처리
- 위 과정을 처리하는 주요 기법이 바로 가상 DOM

정의

•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문서 객체 모델을 흉내 내거나 반영하는 데이터 구조 또는 데이터 구조의 모음

작동 원리

- 1. **렌더링**: 컴포넌트가 JSX를 반환하면 가상 DOM 트리가 생성됨
- 2. 재조정(Reconciliation): 상태 변경 시 새로운 가상 DOM 트리와 이전 트리를 비교
- 3. Diffing: 변경된 부분만 식별
- 4. 패치(Patch): 실제 DOM에 필요한 변경사항만 적용

DOM

정의

- DOM 또는 문서 객체 모델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
- 실제 구현은 달라도 여러 웹 브라우저에 구현된 DOM은 거의 대동소이함

특징

- DOM을 통해 문서의 여러 부분을 구조적으로 접근, 저장하며 조작할 수 있음
- XML 문서의 계층 구조를 반영한 트리 구조, 노드로 표현되는 자식 구조들로 구성

DOM 조작의 문제점

- 비용이 큼: DOM 조작은 브라우저의 레이아웃 계산과 리페인트를 유발
- 복잡성: 직접 DOM을 조작하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버그 발생 가능성 증가
- 성능 이슈: 불필요한 DOM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

가상 DOM의 필요성

문제점

- 대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직접 DOM을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
- 통상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변경 사항을 탐지하려 할 때 드러남
-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UI를 갱신해야 함

해결책

- 위 과정을 효과적이면서 쉽게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리액트가 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
- UI 갱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브라우저가 DOM을 조작하는 방법에 있음

DOM 조작의 복잡성

- DOM 요소에 액세스하고 이를 갱신하거나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요소를 구조화된 트리 구조로 부터 조회해야 함
- 이 조회 과정은 UI를 갱신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일 뿐
- 요소를 조회한 후에는 레이아웃, 크기 및 변경을 위한 기타 여러 동작 수행해야 하며 이들 대부분 작업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

가상 DOM의 역할

- 가상 DOM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제약을 처리하기 위해 DOM의 갱신을 최적으로 수행
-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관리할 때 상당한 양의 변화가 DOM에서 발생
-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충돌을 일으키거나 최적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
- 그 결과 복잡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엔지니어들이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으며 모든 면에서 피해를 보게 됨

성능과 설계 철학

- 성능 문제는 리액트의 디자인 및 구현에 있어 또 다른 핵심
- 가상 DOM을 구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나 가상 DOM은 단지 충분히 빠르게 하기 위한 것
- 가상 DOM은 극한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**견고한 API, 간단한 멘탈 모델**, 그리고 **브라우저 간 호환성** 등 더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됨

갱신과 변경

동작 방식

• 가상 DOM의 동작 방식은 3차원의 게임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음

- 게임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음 → 게임 세계관에 정보를 보냄 → 가상 세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해야 하는 지 결정한 후 렌더링 과정 구현
- 리액트는 UI 갱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유사한 방식을 도입

처리 과정

- 1. 리액트는 메모리에 가상 DOM 생성하고 관리
- 2. 리액트 DOM과 같은 렌더러는 가상 DOM의 변경 사항을 브라우저 DOM에 반영
- 3. 변경사항 처리
- 4. 메모리 DOM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이 실제 DOM의 변경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
- 5. 변경이 발생하면 실제 DOM과 메모리 DOM 차이점 탐색
- 6. 그 후 브라우저 DOM을 효율적으로 갱신
- 7. 위 과정을 비교 후 수정 과정이라 부름

Diffing 알고리즘

- **트리 비교**: 두 가상 DOM 트리를 비교하여 차이점 찾기
- 키(Key) 사용: 리스트 렌더링 시 각 항목에 고유 키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비교
- 타입 비교: 컴포넌트 타입이 다르면 전체 서브트리를 교체
- 속성 비교: 같은 타입의 컴포넌트는 속성만 비교하여 업데이트

가상 DOM 속도가 중요?

성능 이상의 가치

- 가상 DOM은 빠른 속도 그 이상의 장점을 제공
- 성능은 리액트의 핵심 장점이기는 하지만 **간결함**이 그보다 더 우선하는 요소
- 가상 DOM은 복잡한 상태 관리 로직에서 벗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요소의 일부
- 속도와 간결함의 조합이 개발자에게는 리액트를 쓰는 매우 큰 이유 중 하나
- 가상 DOM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만 이해하면 되고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음

실제 성능 비교

- 순수 DOM 조작: 직접 DOM을 조작하는 것보다는 느릴 수 있음
- 복잡한 애플리케이션: 복잡한 상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가상 DOM이 유리
- 개발자 경험: 성능보다는 개발 효율성과 코드 가독성이 더 중요

컴포넌트: 리액트의 기본 단위

정의

- 리액트는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
- 컴포넌트란 더욱 큰 것의 일부
- 컴포넌트는 우리가 정의하는 어떤 형태로든 구현할 수 있음
 - 컴포넌트로서 적합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(예: 인터페이스 전체를 단 하나의 컴포넌트로 해도 구현은 가능하지만 불필요함)
-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컴포넌트로 정의할 수 있음
- 같게 반복되는 아이템들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정의하고 각기 다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사용 가능

컴포넌트 종류

- 함수형 컴포넌트: 함수로 정의된 컴포넌트 (현재 권장 방식)
- 클래스 컴포넌트: 클래스로 정의된 컴포넌트 (레거시)
- 고차 컴포넌트(HOC): 다른 컴포넌트를 감싸는 컴포넌트
- 렌더 프롭: 함수를 자식으로 받는 컴포넌트

컴포넌트 설계 워칙

- 단일 책임 원칙: 하나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함
- 재사용성: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
- 테스트 가능성: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함
- 명확한 인터페이스: props와 state가 명확해야 함

캡슐화와 재사용

특징

- 리액트 컴포넌트는 캡슐화되어 있고 재사용 및 재구성할 수 있음
- 복잡한 코드 대신 간결한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음
 - 이 예: 레고를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것과 유사

설계 워칙

- 리액트 기반의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컴포넌트 디자인에서 그 구조와 일관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
- 위와 같이 진행함으로써 컴포넌트는 더 뛰어난 이식성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그룹화되며 다른 지점으로 이동이 쉽고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걸쳐 재사용 가능

장점

- 컴포넌트 간의 경계는 기능의 분할과 잘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음
- 독립적인 컴포넌트는 재사용성과 이동성을 의미
- 컴포넌트는 상호작용하며 함께 동작
- 여러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합성 컴포넌트를 만들 수도 있음
- 생명주기 메서드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컴포넌트가 다른 생명주기 시점으로 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의되어 있음

컴포넌트 통신

- Props: 부모에서 자식으로 데이터 전달
- State: 컴포넌트 내부 상태 관리
- Context: 전역 상태 관리
- Refs: DOM 요소에 직접 접근

팀을 위한 리액트

리액트가 팀에게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

간결함

- 간결함은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
- 대부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다 보면 코드가 지저분해지지만 리액트는 간결하고 유연함
- 강력한 추상화 덕분에 리액트는 간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고급 기술을 적용할 방법을 제공함으로 유연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제공

가벼운 라이브러리

- 리액트는 책임과 기능 면에서 가벼운 라이브러리
-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로지 뷰에 관련된 부분만을 담당
-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기술에 리액트를 접목하기 쉬우며 부족한 기능들은 원하는 도구들로 보완 가능

팀 개발에서의 장점

- **일관된 코드 스타일**: ESLint, Prettier 등으로 코드 스타일 통일
- 컴포넌트 재사용: 공통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구축 가능
- 테스트 용이성: 각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테스트 가능
- 문서화: Storybook 등을 통한 컴포넌트 문서화

리액트 생태계

상태 관리

- Redux: 예측 가능한 상태 컨테이너
- MobX: 반응형 상태 관리
- Zustand: 간단한 상태 관리
- Recoil: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실험적 상태 관리

라우팅

- React Router: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
- Next.js: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라우팅

UI 라이브러리

- Material-UI: 구글의 Material Design
- Ant Design: 엔터프라이즈급 UI 라이브러리
- Chakra UI: 접근성을 중시한 UI 라이브러리
- Tailwind CSS: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

개발 도구

- React DevTools: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
- Storybook: 컴포넌트 개발 환경
- Jest: 테스트 프레임워크
- Testing Library: 컴포넌트 테스트 라이브러리

요약

-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
- 컴포넌트에 기초한 간결하면서도 유연한 API를 제공

- 컴포넌트는 리액트 기본 단위이며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폭넓게 활용됨
-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램과 실제 브라우저 DOM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가상 DOM을 구현
- 가상 DOM은 굉장히 빠른 변경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실제 DOM을 효과적으로 갱신
- 가상 DOM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적인 멘탈 모델을 제공